2024. 10 동향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4년 10월 30일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02 국내 항만 주요 동향
15 국외 항만 주요 동향
26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부산항, 메탄올 벙커링·하역 동시작업 실증 성공
- 울산항만공사, 시애틀항만청과 녹색해운항로(Green Corridor) 협력 강화
- 경상북도, 영일만항에 에너지 항만 구축 계획 발표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중국, 카자흐스탄 악타우항 내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 PSA 싱가포르, 투아스 항만(Tuas Port)에 새로운 공급망 허브(PSCH) 착공
- 미국 동부 항만 노동자 파업 3일 만에 종료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컨테이너 운임 변동성 강화로 화주들의 어려움 가중 예상
- 건설경기 침체로 시멘트 출하량 급감
- 현대글로비스, 중국 최대 전기차생산기업과 해상운송 협업 추진

항만과 산업은 최신 국내외 항만물동량과 산업 동향을 월 2회 이메일로 배포하고 있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1-797-4657) 또는 이메일(pdac@kmi.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0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① 부산항만공사(BPA),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1)]

- **BPA는 부산신항사업소 화물차 주차장 부지에 화물차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함**
  - 「진해신항 일원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를 포함하여 창원시, 창원산업진흥원, SK에너지(주), 내트럭하우스 등 5개 기관이 협력하여 지난 '22년부터 진행함
  - SK에너지(주)와 내트럭하우스가 운영을 맡아 올해 10월 중으로 운영을 개시할 예정임

- **BPA는 수소충전소 구축을 통해 화물차를 비롯하여 대형 모빌리티용 수소차량 보급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양한 수소 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 밝힘**

부산항 신항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자료 : 부산항만공사,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2786(2024.10.17.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10.15.),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2786(2024.10.17. 검색)

2 부산항, 메탄올 벙커링·하역 동시작업 실증 성공[2)]

- **BPA는 부산항 신항에서 국내 최초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에 대한 STS(Ship-To-Ship) 방식의 메탄올 공급 및 하역 실증작업을 성공함**
  -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23년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메탄올 벙커링 선박 확보 및 벙커링·하역 동시작업 실증을 추진함에 있어 BPA는 친환경 선박 연료공급 실증사업에 대해 항만시설 이용료 면제 혜택을 주는 등 해당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실증사업은 신항 2부두에서 약 11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ANTONIA MAERSK호(16,000TEU급)에 약 3,000톤의 메탄올을 공급함

- **한편, 부산항은 지난 8월 LNG 벙커링·하역 동시작업 실증 성공에 이어 메탄올 실증사업까지 성공함에 따라 친환경 항만 경쟁력의 중요한 성과를 이뤘다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 부산항 신항 2-6단계 국산 자동화 하역장비 제작 착수[3)]

- **BPA는 서컨테이너 2-5단계에 이어 2-6단계 부두의 국산 자동화 하역장비의 본격적인 제작을 알리는 강재절단식을 개최함**
  - 국산 자동화 하역장비 제작 및 설치를 통해 스마트 항만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미래항만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됨
  - 트랜스퍼크레인 34기의 제작 작업을 시작으로 '27년 6월에 2-6단계 부두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임

- **BPA는 국산 기술 기반의 하역장비 제작 및 도입을 통해 국내 중공업체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10.07.),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2755(2024.10.17. 검색)
3)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10.02.),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2747(2024.10.17. 검색)

2) 인천항

1 인천항만공사(IPA), 인천시 포워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 지급 예정[4)]

- **IPA는 인천지역 물류업계 지원을 통한 인천항 물동량 증대를 위해 인천시 포워더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임**
  - IPA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실적 검증을 거쳐 12월 중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임
  -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된 포워더 중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인천항 이용 컨테이너 물동량이 200톤 이상인 기업임
  - '20년부터 시작한 '인천시 포워더 인센티브'는 '23년까지 총 194개 기업에 누적 4억 9,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4년도 예산 규모는 총 1억 5,000만 원임
  - 한편, IPA는 11월에 '인천시 포워더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센티브제도 홍보와 물류업계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할 예정임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2 미국 크루즈 선사 Norwegian의 SPIRIT호, 올해 3번째 입항[5)]

- **IPA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 미국 크루즈 선사 Norwegian의 SPIRIT호가 인천항에 입항함**
  - 지금까지 인천항에 3번째 입항한 SPIRIT호는 11월 입항까지 포함하여 인천항을 모항으로 하는 운항을 '24년도에 총 4번 실시할 예정임
  - 7만 5천 톤급 선박에 승객 2천여 명, 승무원 8백여 명을 실은 SPIRIT호는 도쿄항~나고야항~고배항~나하항~이시가키항~제주항~인천항을 기항하였음
  - SPIRIT호는 금회 항차에서 식자재 60톤, 신선식품 100톤 등 총 160톤, 약 12억 원 상당의 선용품을 모두 인천항에서 공급함
  - IPA 관계자들은 연이은 크루즈 모항 운영이 인천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4.10.20.),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8672&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2024.10.21. 검색)
5)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4.10.13.),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8672&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 (2024.10.21. 검색)

3) 여수·광양항

1 현대로템, 광양항 물류 자동화설비 수주[6)]

현대로템은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에서 발주한 약 828억 원 규모의 광양항 자동화 부두 AGV 제작 및 납품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힘

- 무인이송장비(AGV)는 화물을 적재해 지정된 장소까지 자동으로 이송하는 무인차량으로, 물류 자동화의 핵심설비임
- 현대로템은 이번 수주를 통해 오는 '29년까지 총 44대의 항만 AGV를 비롯한 관제시스템, 충전기 등 관련 인프라 설비를 광양항에 공급할 예정임
- 현대로템이 공급할 AGV는 최대 65톤 중량의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는 대형 항만 AGV로 고속 충전 시스템을 적용해 30분 충전으로 약 8시간 구동이 가능함
- 현대로템이 공급할 물류 자동화설비는 컨테이너 이송 및 적재, 반출 등 부두 내 모든 물류 과정의 완전 자동화가 구현될 광양항의 물동량을 맡게 될 전망임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6) 철도경제(2024.10.07.), https://www.r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07(2024.10.21. 검색)

4) 울산항

1 울산항만공사(UPA), 시애틀항만청과 녹색해운항로(Green Corridor) 협력 강화[7)]

시애틀항만청 관계자가 UPA를 방문하여 녹색해운항로 협력강화를 위해 양 항만 간의 녹색해운항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 녹색해운항로는 해운업계의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저탄소·무탄소 연료(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를 사용하는 선박을 도입한 항로를 의미함
- 국제해사기구(IMO)의 강화된 환경 규제에 맞춰 친환경 선박연료 사용 확대를 논의하고 양 항만의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사례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등 미래 한미 녹색해운항로(울산-시애틀)를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함
- 특히 양 항만은 각국의 자동차 수출입 물류의 주요 거점으로, 최근 녹색해운항로 개설을 위한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부산·울산항과 시애틀·타코마항 간 컨테이너·자동차 운반선 항로를 예비 녹색해운항로로 선정한 바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7)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9.23.),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Idx=671&mid=0501010000&&idx=14201(2024.10.20. 검색)

2 UPA, 부산항만공사(BPA)와 함부르크항만공사(HPA)와 친환경 선박연료 협력 MOU 체결[8)]

- **UPA는 9월 24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부산항만공사(BPA), 함부르크항만공사(HPA)와 친환경 연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MOU를 통해 '친환경 선박연료(메탄올 등) 사용 촉진', '벙커링 기술 표준화', '해상 탈탄소화 및 항만 내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친환경 선박 운항 지원 및 벙커링 활성화 방안' 등을 공동 모색하기로 함
  - 각 항만공사는 친환경 선박 연료 사용과 벙커링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임
  - 해양수산부는 '23년 11월 15일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통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으로 울산항이 지정되었으며, UPA와 BPA는 울산항-부산항 간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8)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9.24.),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Idx=671&mid=0501010000&&idx=14204(2024.10.20. 검색)

5) 평택·당진항

① 평택지구 배후단지 연안정비 사업 추진[9)10)]

경기도는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대를 '평택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해안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연안정비사업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수립되는 해양수산부의 국비 지원 사업으로 훼손된 연안 정비, 국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목표임
- 평택 연안정비사업은 항만배후단지 인근 소외 지역을 정비하고 갯벌의 자연 기능을 복원하는 친환경 사업으로 '26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73억 원을 투입할 예정임
- 주요 사업으로는 자전거공원 및 생태관찰체험장 등 5만 3,650㎡ 규모의 친수공간 조성, 6.4㎞에 이르는 해안 산책로 구축이 포함됨
- 평택항 주변 지역은 관광단지와 어촌뉴딜 사업, 캠핑장 조성 사업과 연계되어 있어 휴식과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됨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연안정비 사업계획도

자료: 뉴시스(2024.09.2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22_0002894229(2024.10.20.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9) 뉴시스(2024.09.2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22_0002894229(2024.10.20. 검색)
10) EBN산업경제(2024.09.13.), https://www.ebn.co.kr/news/view/1637091(2024.09.23. 검색)

6) 포항항

1 경상북도, 영일만항에 에너지 항만 구축 계획 발표[11)]

경상북도는 10월 10일 발표한 에너지 대전환 구상에서 포항 영일만항의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함

- 경상북도의 에너지 대전환 7대 전략은 신재생에너지, 차세대원자로, 에너지고속도로, 원자력 산업 생태계, 청정수소, 에너지항만, 분산에너지임
- 청정수소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에 청정수소 생산 클러스터와 원전수소 산업혁신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하고 포항에 연료전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임
- 이렇게 생산한 수소에너지를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철, 수소충전소, 수소발전소 등에 공급하는 수소에너지 고속도로(1천km 배관망)도 구축할 계획임
- 동해안 송전선로 부족으로 송전에 제약이 있는 울진 원자력의 전력을 영덕, 포항 등으로 공급하기 위한 동해안 해저 국가 전력망 구축 추진 계획도 포함되었음
- 영일만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계획들로는, 먼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 상업 생산과 연계해 영일만항 일원에 가스/원유 분리시설 및 원유비축 저장탱크를 구축하고자 함
- 탄소중립항만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수소 복합터미널과 해상풍력 지원항만, LNG 인수기지 및 벙커링 터미널까지 영일만항 일원과 배후산단에 구축할 계획임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11) 연합뉴스(2024.10.10.),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0074600053(2024.10.20. 검색)

7) 동해·묵호항

1 강원 경제인들, 동해신항 조기 완공 촉구[12)]

- **강원경제인연합회(강경연)와 동해경제인연회(동경연)는 '24년 10월 16일 동해신항의 조기 완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 이들은 동해신항이 환동해권의 산업지원 거점항만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두의 빠른 완공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함
  - 동해항은 현재 채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동해신항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이 사업은 최대 10만 톤 규모의 부두 7선석, 하역능력 4,100만 톤, 접안 능력 23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투자액은 약 1조 8,848억 원에 달함
  - 호안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1번 석탄 부두, 2번 기타광석 부두, 3번 잡화 부두의 조기 착공이 기대되고 있음

- **강원경제계는 이 부두가 완공되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년 착공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봄**
  - 특히 1번 선석에 1,345억 원, 2번과 3번 선석에는 각각 2,3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임
  - 이들은 동해신항 완공이 동해항의 물류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동해 본항과 묵호항의 환경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함
  - 벌크 화물의 이전을 통해 송정, 북평, 북삼 지역의 환경 문제를 완화하고, 묵호항의 기존 산업 시설들을 빠르게 이전해야 묵호항이 해양관광 거점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함

- **'제5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동해와 삼척 지역이 수소 저장 및 운송 클러스터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 4번과 5번 선석의 수소 전용 항만 조기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는 정부의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과 강원 영동남부권의 에너지 산업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필수적인 사업으로 평가됨

- **강경연과 동경연은 동해항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비자 통관 절차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우수한 수출입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 동해신항의 조기 완공이 동해안 경제 위기를 해결하고, 북방물류 중심 항만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강원도, 정치권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2) 강원신문(2024.10.17.), https://www.gw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248926(2024.10.20. 검색)

8) 목포항

1 '24년 8월 총 항만물동량 전년 동월 대비 0.8% 소폭 증가

- **목포신항이 해상풍력산업의 허브항만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24년 8월 목포항의 물동량은 214만 4천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함**
  - 해상풍력 사업에 따른 기재가 적치 등으로 철재 물동량은 같은 기간 26.4% 증가하였으나, 잡화 물동량 및 모래 물동량이 각각 47.4%, 38.4% 감소하면서 낮은 증가세를 기록함
  - 컨테이너 물동량은 8천 TEU로 전년 동월 대비 28.2% 증가함

- **그러나 여전히 누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0% 감소한 1,479만 5천 톤을 기록하고 있어 물동량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8월 누적 기준 모래 물동량이 33.6%, 잡화가 41.4% 감소하면서 목포항 물동량의 감소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24년 8월 목포항 물동량 현황

단위 : 천 톤, 천 TEU

구분		2023년		2024년			전월 대비	전년 대비	
		8월	누적	7월	8월	누적		동월	누적
합계		2,127	16,813	1,787	2,144	14,795	20.0	0.8	-12.0
양곡		33	176	12	0	195	-100.0	-100.0	11.0
시멘트		89	675	109	121	869	10.8	35.1	28.8
모래		65	415	32	40	276	27.3	-38.4	-33.6
석탄		0	3	0	0	0	-	-	-100.0
철광석		0	0	0	0	0	-	-	-
기타광석		92	393	25	90	436	255.9	-1.8	10.9
유류		124	894	105	89	844	-15.4	-28.2	-5.7
화공품		0	3	0	0	0	-	-	-100.0
목재		0	0	0	0	3	-	-	-
고철		69	787	6	6	63	3.3	-90.8	-92.0
철재		195	2,681	262	246	2,407	-5.8	26.4	-10.2
자동차		1,278	9,367	1,168	1,455	8,871	24.6	13.8	-5.3
잡화		182	1,419	68	96	832	40.2	-47.4	-41.4
컨	천 톤	69	604	99	92	746	-6.7	34.1	23.5
	천TEU	6	52	8	8	56	-1.3	28.2	6.6

자료: 통합 Port-MIS(2024.10.17.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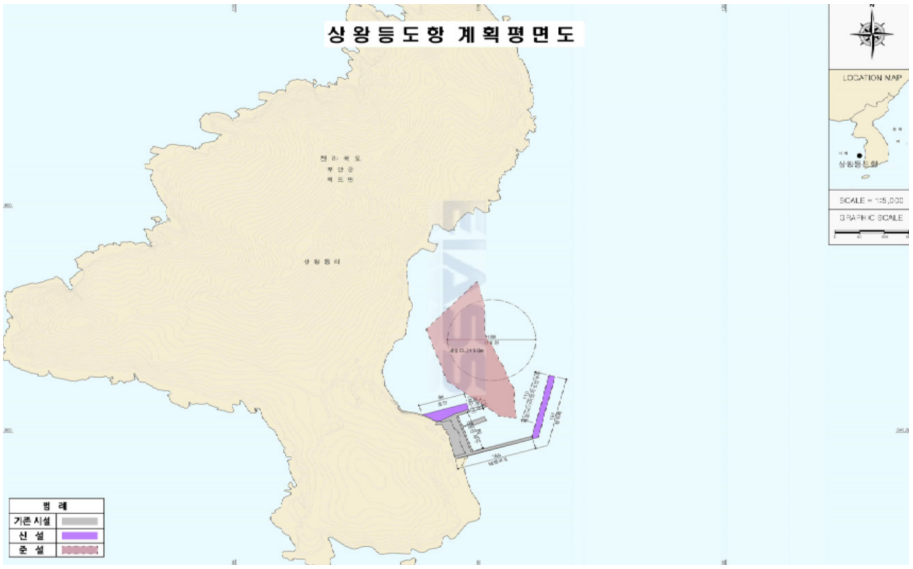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9) 군산항

① 상왕등도항 남방파제 및 선착장 건설 실시계획 수립[13)]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9월 30일에 '상왕등도항 남방파제 및 선착장 축조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함**
  - 방파제 및 선착 건설은 상왕등도항 내 영해관리를 위한 해경 및 어업지도선 접안과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음
  - 해경부두 조성 지연으로 해상경비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상경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계류시설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공사 규모는 남방파제 151m와 접안시설 2천 톤급 1선석(110m)으로 '27년에 완공 예정임

남방파제 및 선착장 건설사업 지구 위치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13) 군산지방해양수산청 (2024.09.30.), https://gunsan.mof.go.kr/ko/board.do?menuIdx=1111&bbsIdx=106609, (2024.10.21. 검색)

10) 마산항

1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심사[14)]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찾고 있지만, 4차 공모 재심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

- ’21년 4차 공모에서 탈락한 GS건설 컨소시엄과의 소송에서 시가 패소한 후, 시는 3개월 동안 재심사 방침을 정했으나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음
- 재심사는 4차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한 GS건설 컨소시엄만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새 공모가 아닌 기존 공모 내용의 재평가 방식임
- 하지만 공모 과정에서 업체명이 공개된 상황이라 공정성 문제와 3년 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재심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기존 참여 업체들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재심사 타당성 문제도 검토 중임

창원시는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4차 공모 관련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음

- 대법원은 GS건설 컨소시엄 참여 업체 중 한 곳이 제기한 소송에서, 창원시가 해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 이에 창원시는 재심사를 통해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한편, 5차 공모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HDC) 컨소시엄과의 법적 분쟁도 진행 중임
- HDC 컨소시엄의 참여 업체인 휴벡스피앤디는 창원시가 GS건설 컨소시엄의 4차 공모 재심사를 추진하는 데 반발하며, 5차 공모 관련 소송이 끝날 때까지 4차 공모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휴벡스피앤디의 신청을 받아들여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본안 소송은 진행 중임

14) 경남도민일보(2024.10.09.),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21920(2024.10.23. 검색)

마산해양신도시의 공공 영역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혁신타운과 한국관광정원 조성 등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반시설 공사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임

-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13년에 시작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전체 면적 64만 2,167㎡ 중 68%는 공공 부문, 나머지 32%는 민간에 매각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 이 지역은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서 나온 항로 준설토로 조성된 인공섬임

마산해양신도시 부지

자료 : 경남도민일보(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21920)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0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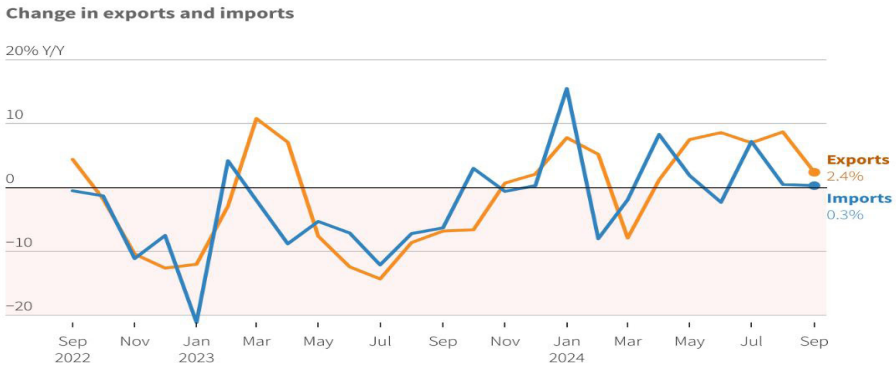
① '24년 9월 수출 증가세 둔화[15)]

- **'24년 9월 중국의 수출 및 수입이 시장의 예측치를 모두 크게 밑돌면서 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이 높아짐**
  - 중국의 9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였으며, 이는 '23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며 시장 예측치인 6.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수입 역시 같은 기간 0.9% 소폭 증가에 그침

- **중국 내 제조업체들은 올 초부터 중국에 부과될 관세 조치를 앞두고 재고 등을 처분하기 위해 물량을 빠르게 밀어내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영향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0월 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미국과 캐나다도 중국에 대해 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이러한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 확대는 장기적으로 수출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침체된 내수 수요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의 국가 계획 책임자는 올해 5%의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경지부양책의 부재로 분석가들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중국 수출입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REUTERS,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china-sept-export-growth-hits-5-month-low-global-demand-cools-2024-10-14/(2024.10.16.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5) REUTERS(2024.10.14.),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china-sept-export-growth-hits-5-month-low-global-demand-cools-2024-10-14/(2024.10.17. 검색)

2 중국과 멕시코 간 무역 증대[16)]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중국과 멕시코 간의 무역이 대폭 증가함

- ’24년 7월 누적 기준 중국과 멕시코 간 컨테이너 무역은 전년 동기 대비 26.2% 증가하였으며, 4월부터 6월까지 멕시코의 미국 수출량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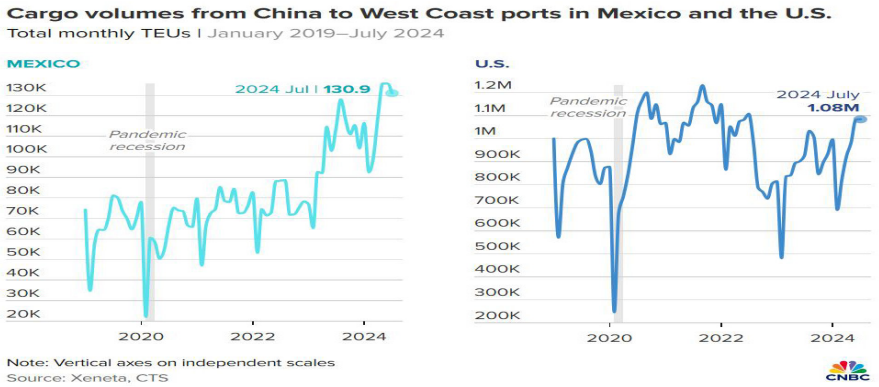
이는 중국 기업들이 추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멕시코를 미국으로의 우회 수출을 위한 ‘백도어’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기인함

- 중국에서 멕시코로 들어오는 원자재와 부품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부품들은 멕시코에서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 트럭과 철도를 통해 미국으로 운송됨
- 이런 경우 해당 완제품에 대해 ‘멕시코산’ 원산지 표기가 붙기 때문에 많은 중국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멕시코로 이전하고 있음

한편,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과 경제 동맹의 제조업체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등 글로벌 제조 허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3년 멕시코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3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 증가한 수치이며, ’24년 상반기는 이미 31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고 실적을 세우고 있음

멕시코와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 컨테이너 물동량



자료: CNBC, https://www.cnbc.com/2024/09/20/china-mexico-backdoor-trade-booms-in-trump-biden-tariff-era.html(204.10.17.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6) CNBC(2024.09.20.), https://www.cnbc.com/2024/09/20/china-mexico-backdoor-trade-booms-in-trump-biden-tariff-era.html(204.10.17. 검색)

3 중국, 카자흐스탄 악타우항 내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17)]

- **지난 9월 20일,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스탄 악타우항에 컨테이너 허브를 건설하기 위한 합작 투자 설립에 대해 서명함**
  - 해당 사업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중국의 롄윈강 항만, 카자흐스탄 국영 철도회사인 '카자흐스탄 테미르 졸리(KTZ)'의 자회사인 'KTZ 익스프레스', 악타우 항만이 참여함

- **해당 사업은 중국에서 중앙아사이와 남카프카스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카스피해 횡단 국제 운송로(TITR: 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경로의 매력과 물동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중국의 롄윈강항은 지난 10년간 KTZ 익스프레스와 오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있음**
  - 롄윈강항에 중국과 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터미널 개발 및 중국과 카자흐스탄 국경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최대 드라이 포트인 Khorgos Gateway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7) The Times of Central Asia(2024.09.23.), https://timesca.com/kazakhstan-and-china-to-build-container-hub-in-the-port-of-aktau/(2024.10.17. 검색)

2) 아시아

1 PSA 싱가포르, 투아스 항만(Tuas Port)에 새로운 공급망 허브(PSCH) 착공[18)]

지난 10월 18일에 싱가포르터미널 운영업체인 PSA Singapore는 투아스 항만에 건설될 새로운 물류 허브의 기공식을 주최함

- '27년에 완공 예정인 PSA 공급망 허브(PSCH)는 200만 평방미트 이상 되는 첨단 물류 시설로 자동 저장 및 검색 시스템(ASRS)과 지능형 창고 교환 시스템(iWX)을 포함한 첨단 로봇 공학 및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임
- PSA 공급망 허브는 투아스 항만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싱가포르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의 무역과 물류 부문을 지원하고 싱가포르항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22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투아스 항만은 현재 10개 선석이 운영되고 있으며, '40년대에 완전히 완공될 경우 연간 6,500만 TEU를 처리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완전 자동화 항만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2 일본 9월 수출, 10개월 만에 감소 기록[19)]

일본의 수출 물동량은 '24년 9월 기준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여 전년 동월 대비 1.7% 하락함

- 일본의 수출 물동량이 감소세로 전환한 원인은 주요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글로벌 성장 둔화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
- 실제로 일본의 최대 교역 국가들의 경우 대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7.3%, 대미는 2.4% 감소함
- 이러한 수출 약세로 인해 9월 무역적자가 2,943억 엔으로 예상했던 2,376억 엔 대비 크게 감소함
- 일본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등 외부 위험을 강조하며 장래 일본 경제 회복을 우려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18) Seatrade Maritime(2024.10.18.), https://www.seatrade-maritime.com/ports-logistics/psa-breaks-ground-on-singapore-supply-chain-hub (2024.10.21. 검색)
19) Reuters(2024.10.17.), https://www.reuters.com/world/japan/japans-september-exports-post-first-fall-10-months-2024-10-17/(2024.10.22. 검색)

3 인도, 외국 항만 개발 위한 컨소시엄 구성[20)]

인도는 외국 항만의 인수 및 개발을 통해 해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함

- 이 전략적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무역 및 물류 분야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인도 해양 전략의 일환임
- 컨소시엄은 인도의 공공 및 민간부문이 참여하며, 인도의 국제 시장 접근성 개선 및 해외 항만 프로젝트 투자를 주요 목적으로 함
- 외국 항만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해상운송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물류비용 절감 및 인도 상품에 대한 무역 경로 촉진을 기대함
- 또한 해운 부문에서의 고용 창출 및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인도의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도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0) Construction World(2024.10.18.), https://www.constructionworld.in/transport-infrastructure/ports-and-shipping/india-forms-consortium-for-foreign-port-development/63822(2024.10.21. 검색)

3) 미주

1 CMA CGM, 브라질 산투스(Santos)항 지분 48% 인수[21)22)]

- **프랑스 선사 CMA CGM은 브라질 항만운영사 산투스브라질(Santos Brasil)의 지분 48%를 인수하며, 남미 최대 컨테이너 터미널을 포함한 브라질 전역의 주요 항만 운영을 강화하고 있음**
  - CMA CGM은 산투스브라질의 지분 48%를 인수하고, 향후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도 공개 매수할 계획임
  - 산투스브라질은 산투스항을 비롯해 브라질의 주요 항만에 컨테이너 터미널, 자동차 터미널, 액체·벌크 터미널 등 8개의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브라질 물동량의 약 40%를 처리하고 있음
  - 산투스항의 테콘 산투스(Tecon Santos) 터미널은 연간 250만 TEU의 처리 능력을 갖춘 남미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47년까지 장기 양보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 이번 인수를 통해 CMA CGM은 브라질에서의 물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유럽, 아시아, 북미, 카리브해를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게 됨
  - 아울러 CMA CGM은 LNG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을 브라질에서 운항하는 등 지속 가능한 해상 수송을 추진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1) OFFSHORE ENERGY(2024.09.23.), https://www.offshore-energy.biz/cma-cgm-acquires-santos-brasil-expanding-footprint-in-south-america/(2024.10.20. 검색)
22) 코리아쉬핑가제트(2024.09.30.),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42747(2024.10.20. 검색)

2 미국 동부 항만 노동자 파업 3일 만에 종료[23)]

작년과 올해, 가뭄에 따른 수량 부족으로 선박 병목 현상을 빚은 파나마 운하에 새로운 물길이 건설될 예정임

-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와 미국해운연합(USMX) 간에 발생한 이번 파업은 1977년 이후 처음으로 일어난 대규모 항만 파업이며, 메인에서 텍사스까지 36개 항만이 영향을 받음
- 파업에는 ILA 소속 항만 노동자 4만 5,000명이 참여했으며, 앞서 JP모건은 이 파업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하루에 약 50억 달러(약 6조 6,680억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내다봄
- 파업은 3일간 이어졌으며, 파업 기간 최소 54척의 컨테이너선이 대기하며 다양한 물품의 수송이 지연되었으나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와 미국해운연합(USMX)은 6년간 임금을 62% 인상하는 데 합의하며 종료됨
- 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3일 밤에 항만이 다시 운영되기 시작했으나, 항만 자동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으며, 노동자들은 자동화가 일자리를 위협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한편, 아시아 해운 회사 주가는 파업이 예상보다 일찍 합의되면서 운임 급등 기대가 약화되어 크게 하락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3) 뉴스1(2024.10.04.),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5558889(2024.10.20. 검색)

4) 유럽

1 유럽연합,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24)]

유럽연합은 10월 4일,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건을 승인함

- 이는 중국의 보조금 정책을 불공정 경쟁으로 판단한 1년간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이며, 이번 관세는 11월부터 5년간 시행될 예정임
- 투표 결과는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10개국에서 찬성했으나 독일 등 5개 국가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 악화를 우려해 반대하였고, 12개국은 기권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브랜디, 유제품, 돼지고기에 대한 조사와 WTO 제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독일산 대형 엔진 차량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을 검토 중임
- 폭스바겐과 BMW는 이번 조치가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으며, 스텔란티스는 환경 규제와 중국의 상업적 공세 속에서 자동차 업계가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힘
- 한편, 관세로 인해 전기차 가격이 상승하면 EU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EU의 2025년 탄소 감축 목표가 연기되는 동시에 중국산 저가 모델의 수입이 제한되면 유럽의 전기차 생산이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번 결정은 EU와 중국 간 10년 내 최대의 무역 분쟁으로 평가되며, 양측 간의 경제 냉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4) Reuters(2024.10.05.),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eu-governments-face-pivotal-vote-chinese-ev-tariffs-2024-10-04/(2024.10.20. 검색)

2 피레우스 항만 노동조합, 이스라엘행 탄약 컨테이너 운송 저지[25)]

10월 17일 저녁, 그리스 피레우스 항만의 노동자들은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반대하며 이스라엘로 향할 탄약 컨테이너 운송을 봉쇄함

- 피레우스 항만 노조는 컨테이너 터미널 외부의 공공도로에서 봉쇄를 시작해 약 20톤의 탄약을 운송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의 진입을 지연시켰고, 해당 화물이 운송될 경우 피레우스의 노동자와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적들로부터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 이스라엘로 향하는 무기와 탄약을 겨냥한 항의 시위는 여러 항만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RDX 폭발물이 담긴 8개 컨테이너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8천 DWT급 화물선 Kathrin이 나미비아, 몬테네그로, 몰타에서 반전 운동가들의 청원으로 접안 권한이 거부된 사례가 있으며, 해당 선박은 여전히 해안에 정박된 상태임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5) The Maritime Executive(2024.10.18.),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greek-dockers-set-up-blockade-to-halt-shipment-of-ammunition-to-israel (2024.10.20. 검색)

5) 오세아니아

1 시드니, 호주에서 첫 번째로 크루즈 선박에 육상 전력 공급 시설 제공[26)]

뉴사우스웨일스(NSW)주 항만청이 시드니 화이트 베이 크루즈터미널에 호주 최초의 크루즈 선박 육상 전력 공급 시설을 건설할 예정임

- '24년 말에 착공하여 '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약 2,000만 호주달러(약 190억 원)로 공사는 Powercon이 수주함
- 이 시설이 완공되면 크루즈 선박들은 항구에 정박할 때 엔진을 끄고 육상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화이트 베이 지역의 탄소 배출량을 매년 4,000톤 이상 줄일 것으로 예상, 이는 자동차 1,100대를 도로에서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임

화이트 베이 터미널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크루즈 선박은 이미 육상 전력 지원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 시설이 완공되면 이를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될 예정임

- 이 프로젝트는 '19년부터 논의되었으나, 자금 문제로 지연되다가 최근에서야 구체화됨
- 이 육상 전력 시설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 운영될 계획이며, 호주에서 유일한 프로젝트로, 지역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NSW 항만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항구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및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할 계획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6) Cruise&Ferry(2024.09.30.), https://www.cruiseandferry.net/articles/sydney-to-be-the-first-australian-port-to-offer-shore-power-for-cruise-ships(2024.10.09. 검색)

6) 아프리카

1 ICTSI, 더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계약 중단에 법적 대응 예고[27)]

- **필리핀의 항만운영사인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 서비스(ICTSI)는 남아프리카 콰줄루-나탈 고등법원이 더반 컨테이너 터미널 제2부두(DCT2)의 운영 파트너로서 ICTSI를 선정한 Transnet의 결정을 중단하라는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임**
  - DCT2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컨테이너 터미널 중 하나로, 더반항의 72%, 남아공의 전체 물동량의 46%를 처리하는 대형 터미널임
  - 이번 법적 분쟁은 '22년 시작된 입찰 과정에서 비롯, 총 21개 업체가 견적 요청에 응답했고, APM 터미널과 ICTSI를 포함한 10개 업체가 최종 입찰 단계에 진출했음
  - '23년 7월 ICTSI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4년 3월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APM 터미널은 ICTSI의 지급 여력 계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청원을 제출함
  - 법원은 ICTSI가 시가총액을 기반으로 잘못된 지급여력 비율을 산출했다고 판결했으며, 정확한 계산을 적용했다면 ICTSI는 입찰 자격을 박탈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함
  - APM 터미널을 포함한 다른 입찰자들은 모두 올바른 방식으로 지급 여력 계산을 수행했음에도, ICTSI는 RFQ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음

- **현재 법원은 ICTSI와 Transnet 간의 계약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렸고, APM 터미널은 이 결정을 바탕으로 사법 심사를 통해 ICTSI의 입찰을 무효화하고 자신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기를 요구하고 있음**
  - APM 터미널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남아프리카 인프라 개발과 경제 성장을 위해 역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 Transnet도 임시 금지 명령을 준수할 것이며, 검토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7) Seatrade Maritime(2024.10.11.), https://www.worldcargonews.com/news/2024/10/ictsi-to-challenge-court-ruling-on-durban-container-terminal-tender/?gdpr=accept (2024.10.18.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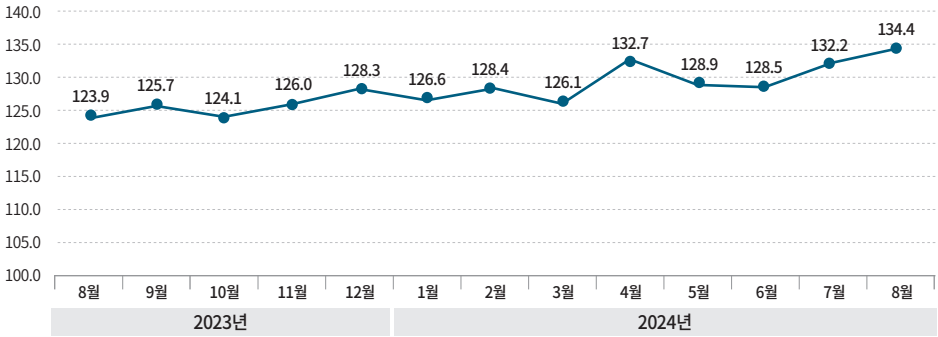
0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

① '24년 8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전월 대비 1.7% 증가[28)]

- **'24년 8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대비 1.7%, 전년 동월 대비 8.5% 증가한 134.4p를 기록함**
  - 중국 항만에서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실적이 149.7p로 전월 대비 2.2%, 전년 대비 8.9% 증가함
  - 유로존 북부와 독일 지역의 8월 항만물동량 지수(North Range Index)는 114.1p로 전월 대비 2.1% 증가함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지수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Total	123.9	125.7	124.1	126	128.3	126.6	128.4	126.1	132.7	128.9	128.5	132.2	134.4	1.7	8.5
China Index	137.5	138.1	135.6	137.9	144.1	140.4	138.6	134.1	156.1	140.9	141.1	146.5	149.7	2.2	8.9
North Range Index	104.3	103.8	104.3	102.6	104.1	95.6	108.7	112.4	111	111.4	110.2	111.7	114.1	2.1	9.4

주: 2015=100, 계절조정
자료: IISL, 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0824(2024.10.17.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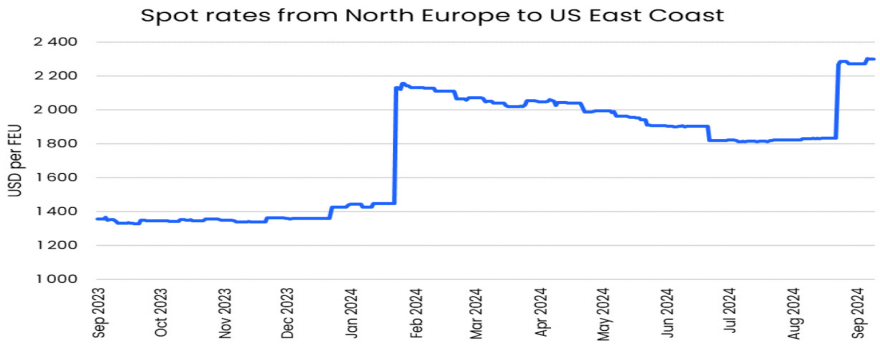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8) ISL(2024.09.30.), 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0824(2024.10.17. 검색)

2 컨테이너 운임 변동성 강화로 화주들의 어려움 가중 예상[29)]

- **글로벌 해상 및 항공 운임 및 시장 분석 기관인 XENTA는 컨테이너 운임의 변동성 강화와 개별 항로에서의 미묘한 운임 차이 등으로 향후 운임 계약에 있어 심층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힘**
  - 스팟 운임의 경우 7월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유럽으로 가는 주요 항로에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해당 항로가 세계적으로 주요한 항로이긴 하지만 이 추세가 시장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음
  - 예를 들어 대서양 횡단 항로의 평균 스팟 운임은 7월 1일 이후 26% 상승해 FEU당 2,300달러에 이르는 등 주요 항로와 다른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음

대서양 횡단 항로 스팟 운임



자료: XENTA, https://www.xeneta.com/blog/the-importance-of-nuance-in-a-volatile-ocean-container-shipping-market-shippers-need-a-deeper-dive-into-the-data(2024.10.17. 검색)

- **또한, 항로별로 운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24년 미 서부 해안의 총수입에서 동아시아 점유율은 증가했지만 오히려 스팟 운임은 7월 1일 이후 미 동부 해안보다 빠르게 하락함**
  - 이는 '24년 일부 화주들이 동아시아에서 미 서부 해안 항로의 서비스 정시성은 67.4%를 기록한데 반해 미 동부 해안 정시성은 39% 수준에 머물고 있어 미 서부 해안으로 수입을 전환하면서 해당 항로에 투입한 컨테이너 가용 용량의 차이에 기인함
  - 7월 8일 동아시아에서 미 서부 해안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용량은 352,000TEU로 펜데믹 기간인 '20년 10월 11일에 기록된 350,700TEU의 최고치를 초과함

- **이러한 변동성과 각 항로에 대한 상반된 운임 추세에 따라 화주들은 운임 계약을 앞두고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9) XENETA(2024.09.19.), https://www.xeneta.com/blog/the-importance-of-nuance-in-a-volatile-ocean-container-shipping-market-shippers-need-a-deeper-dive-into-the-data(2024.10.17.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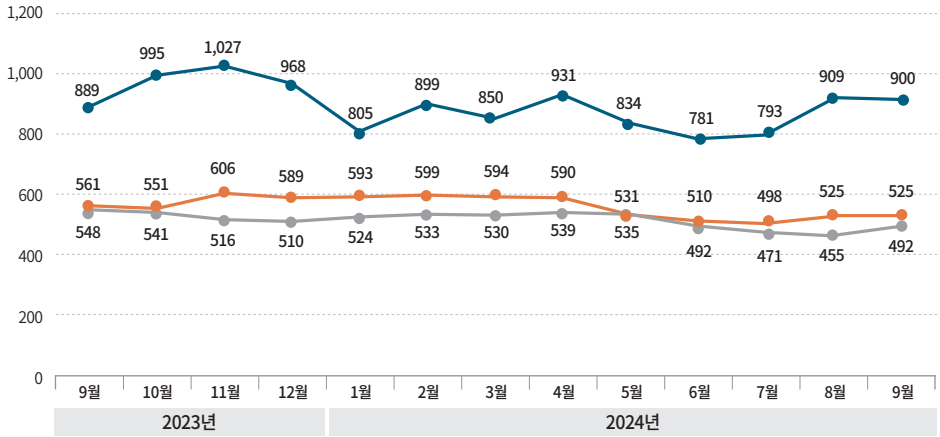
2) 양곡

1 '24년 9월 식용 밀과 옥수수의 수입 단가 전월 대비 증가한 반면 식용 콩 전월 대비 소폭 감소[30)]

- 9월 식용 밀의 수입단가는 전월 대비 6.0% 증가한 톤당 319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사료용은 소폭 감소(0.8%)한 톤당 263달러를 기록함
- 옥수수 수입단가는 식용과 사료용 모두 전월 대비 각각 1.5%, 0.8% 증가한 톤당 268달러, 248달러를 기록함
- 대두박(사료용)의 9월 수입단가는 톤당 492달러로 전월 대비 8.1% 증가하였으나 식용의 경우 전월 대비 1.0% 감소한 톤당 900달러를 기록함

콩 용도별 수입단가 추이

(단위: 달러/톤)



밀과 옥수수 수입단가 추이

(단위: 달러/톤)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밀	제분	347	324	336	328	341	335	334	331	319	324	315	301	319	6.0	-8.1
	사료용	329	308	292	277	274	274	275	273	276	277	262	265	263	-0.8	-20.1
옥수수	제분	305	289	276	276	292	267	272	276	258	277	256	264	268	1.5	-12.0
	사료용	305	284	263	252	258	258	257	258	260	251	246	246	248	0.8	-18.7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3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관측월보(2024.10.02.),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7868/page/1(2024.10.21. 검색)

2 러시아, 수출 대상국 확대를 위해 주요곡물 수출 항만 확장 추진[31)]

러시아는 신규 곡물 시장을 확대를 위해 발트해 항만 확장을 추진함

-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인 러시아가 전통적인 흑해 항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2030년까지 농산물 수출을 50% 늘리는 것을 목표로 발트해 항만을 확장하고 있음
- 2023/24년 시즌에 최소 7,200만 톤의 곡물을 수출한 러시아는 전통적인 수출 대상국이었던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로 시장 확장을 모색하고 있음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1 2024/2025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량 1,250만 톤으로 집계[32)]

2024/25년 7월~6월 시즌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량은 1,250만 톤으로 전 시즌 대비 약 770만 톤함

- 전 시즌 대비 증가한 수출량을 세부 품목으로 살펴보면 밀 710만 톤, 옥수수 350만 톤, 보리 160만 톤임
- 반면 러시아의 본격적인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곡물 대체 수출 경로였던 루마니아 흑해 항만인 콘스탄차항을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물동량이 9월 기준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517만 톤에 그쳤음[33)]
- 이는 우크라이나가 선박 및 항만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자국 항만 의존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임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4.09.30.),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7864 (2024.10.22. 검색)
3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2024.10.21.),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7881(2024.10.22. 검색)
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2024.10.21.),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7879(2024.10.22.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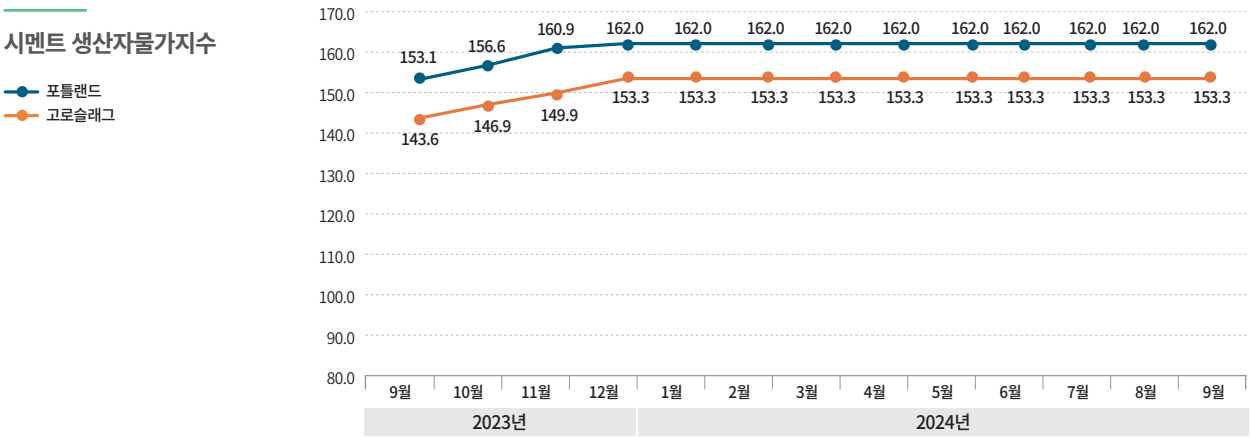
3) 시멘트

1 9월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보합세 지속

- **'24년 9월 포틀랜드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62.0p 및 153.3p를 기록함**
  - 포틀랜드 시멘트는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6.7% 증가함
  - 포틀랜드와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23년 9월 이후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3년 12월에 이후 변동 없이 10개월간 보합세를 나타냄

(단위: 2020년 = 100 기준)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53.1	156.6	160.9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0.0	5.8
고로슬래그	143.6	146.9	149.9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0.0	6.7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4.10.24.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건설경기 침체로 시멘트 출하량 급감[34)]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해 시멘트 업계의 내수 출하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출하량이 최근 10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한국시멘트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 시멘트 수급 전망이 매우 어두우며, 올해 3분기까지 시멘트 내수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9% 감소한 3,222만 톤을 기록함
- '24년 전체 출하량은 약 4,400만 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낮은 수준임

주요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시멘트 업계는 생산량의 90% 이상을 내수 판매에 의존하고 있어 큰 타격을 받고 있음

- 건설수주액도 올해 109조 원에 그쳐 과거 수준인 176조 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준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24년 3분기는 시멘트 업계의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였으며, 일부 업체는 재고 증가로 인해 생산설비 가동 중단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일부에서는 내년도 국내 시멘트 수요가 4,200만 톤 이하로 떨어질 경우, 내수 출하량이 '14년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있을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시멘트 수요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시멘트 업계의 어려움은 급격한 출하 감소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과 탄소중립을 위한 설비투자 부담으로 더욱 악화될 전망임
- 일본의 시멘트 출하량이 한때 연간 1억 톤에서 4,000만 톤 이하로 급감한 것처럼, 한국 시멘트 업계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4) 한국경제(2024.10.2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246958i(2024.10.24. 검색)

4) 모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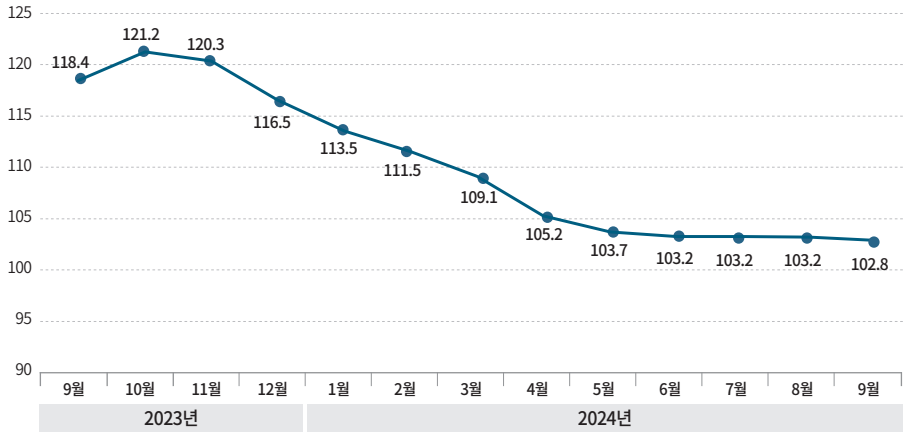
1 9월 생산자물가지수 102.8p 기록, ’23년 6월 이후 첫 감소세

’24년 9월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13.1% 감소함

- 최근 3개월간 변화 없이 보합세를 보이던 생산자물가지수가 감소세로 전환됨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단위: 2020년 = 100 기준)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118.4	121.2	120.3	116.5	113.5	111.5	109.1	105.2	103.7	103.2	103.2	103.2	102.8	-0.3	-13.1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4.10.24.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정부, 공사비 급등 대응 위해 골재 채취 규제 완화 추진[35)]

- **최근 3년간 30% 급등한 건설 공사비를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는 공사비 상승률을 '26년까지 연 2% 안팎으로 관리할 계획을 발표함**
  -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건설 분야 특별·불법·불공정 행위 점검반'을 구성해, 시멘트 가격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 건설업계에서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할 계획, 중국은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 차이가 크지 않아, 수입 경로가 열릴 것으로 보임
  - 바다골재 채취 한도를 총채취량이 아닌 실 채취량 기준으로 변경해 공급을 확대함
  - 산림 및 육상 골재는 토석채취 제한지역이라도 인근 채석단지와 인접하거나 필요할 경우 채석단지 확대를 허용할 방침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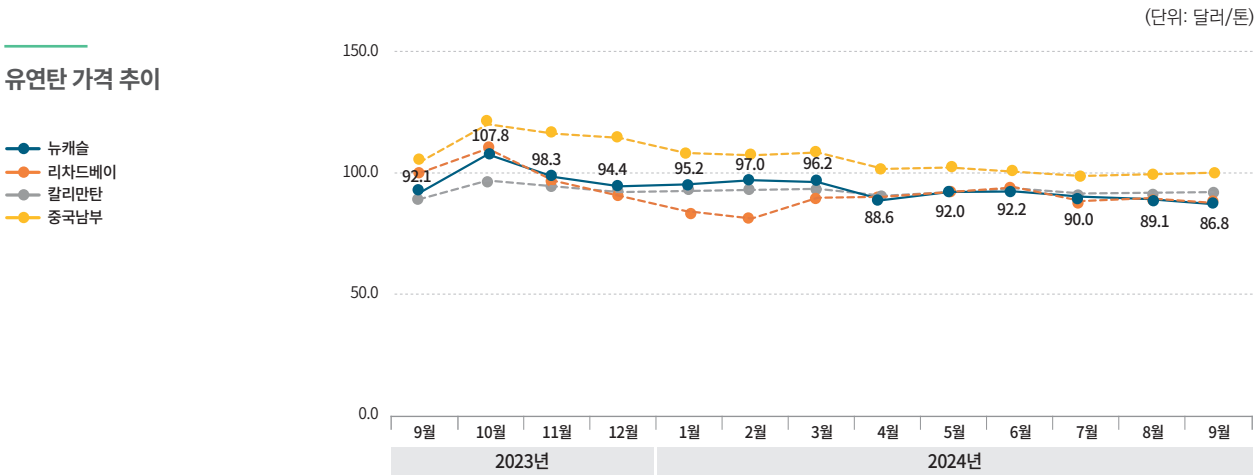
35) 경향신문(2024.10.02.),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410022017005(2024.10.12. 검색)

5) 석탄

1 '24년 9월 유연탄 가격은 전월 대비 소폭 감소

- **호주 뉴캐슬산(5,500kcal/kg, NAR) FOB 기준 연료탄 9월 평균가는 톤당 86.8달러로 전월 대비 2.5% 감소함**
  - 지역별로는 남아공 리차드베이산의 유연탄 가격은 2.2% 감소한 반면,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산, 중국 남부 유연탄 가격은 각각 0.4%, 0.6% 증가함(전월 대비 기준)

유연탄 가격 추이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뉴캐슬	92.1	107.8	98.3	94.4	95.2	97.0	96.2	88.6	92.0	92.2	90.0	89.1	86.8	-2.5	-5.8
리차드베이	100.2	110.1	96.7	89.7	84.1	81.0	89.6	90.1	92.4	93.9	88.3	89.5	87.5	-2.2	-12.7
칼리만탄	89.2	96.9	94.5	91.9	92.6	92.7	93.3	90.4	92.4	93.7	91.5	91.6	91.9	0.4	3.0
중국남부	104.9	120.1	116.3	114.5	108.1	107.2	108.4	101.5	102.0	99.7	98.4	99.2	99.8	0.6	-4.8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 (2024.10.24.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 영국, G7 국가 중 최초로 석탄 발전 시대 종료[36)]

영국은 9월을 기점으로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랫클리프온소어'의 가동을 중단하며 지난 142년간 이어져 온 석탄발전 시대를 종료함

- 영국은 3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탄소 순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과정의 일환으로 G7 중 최초로 석탄 발전을 완전히 퇴출한 국가가 됨
- 90년대 석탄은 영국 전력의 약 80%를 차지하는 등 영국 에너지 공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환경문제와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점차 비중이 감소해 23년 기준 1% 수준에 불과했음
- 이 과정에서 15개 석탄 발전소가 폐쇄되거나 연료를 전환했으며, 마지막으로 랫클리프온소어 발전소의 폐쇄로 영국의 석탄발전 시대가 종료됨
- 영국은 석탄 발전 대신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대체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가스 발전도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새로운 국유 에너지 투자회사 설립, 해상 풍력 프로젝트 규제 완화, 녹색 전력 프로젝트 계약 체결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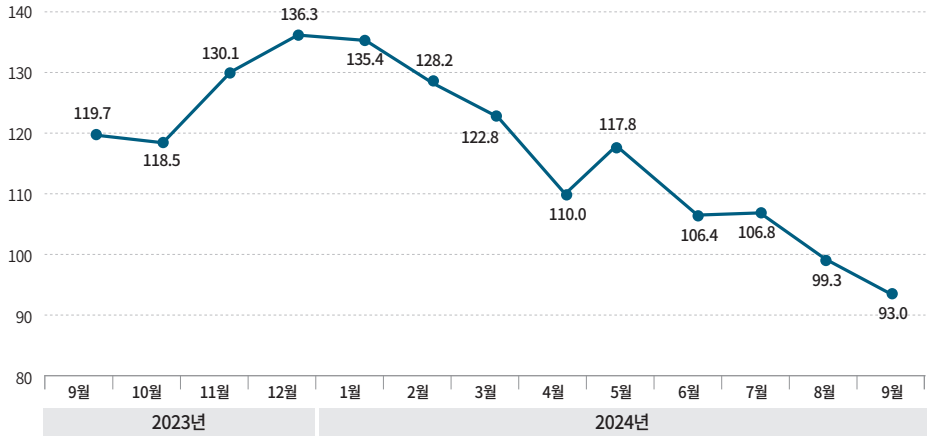
36) 글로벌이코노믹(2024.09.30.),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4/09/202409290641127135fbbec65dfb_1(2024.10.21. 검색)

6) 철광석

① '24년 9월 철광석 가격 전년 동월 대비 10.8% 감소한 106.8달러 기록

- **'24년 9월 철광석 가격(Fe 62%, 중국 칭다오항 도착기준)은 톤당 93.0달러로 전월 대비 6.3%, 전년 동월 대비 22.3% 하락함**
  - 중국 내 조강생산량 감소 및 9월 중국 중추절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22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함
  - 10월은 건설 성수기를 맞아 수요 개선 기대감에 따라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철광석 가격 추이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119.7	118.5	130.1	136.3	135.4	128.2	122.8	110.0	117.8	106.4	106.8	99.3	93.0	-6.3	-22.3

주: 62% 분광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2024.10.17.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주요 글로벌 생산업체, '24년 3분기 생산 증가[37)]

- **글로벌 철광석 생산업체인 리오틴토(Rio Tinto)와 발레(Vale)는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4년 3분기 생산량을 증가함**
  - 철광석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수요가 경제적 불확실성과 부동산 위기로 인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증가함
  - 리오틴토는 3분기 필바라 지역에서의 철광석 생산량이 전 분기 대비 6% 증가한 8,410만 톤을 기록하였으며, 9월 누적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 감소한 2억 4,150만 톤을 기록함
  - 발레사는 3분기 9,097만 톤의 철광석을 생산하였으며 이는 전 분기 대비 12.9% 증가한 수치이며 '18년 4분기 이후 철광석 채굴량은 최고 수준을 기록함

- **생산업체들은 현물 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있으나, 현재 수요 환경에서 철광석 공급이 과잉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철광석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10월 초 중국의 새로운 경기 부양책으로 철광석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10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철강수요 감소 전망과 중국의 지속적인 어려움으로 생산량 확대 정책이 이어질지는 미지수임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7) GMK center(2024.10.16.), https://gmk.center/en/news/key-global-mining-companies-increased-iron-ore-production-in-q3-2/(2024.10.17.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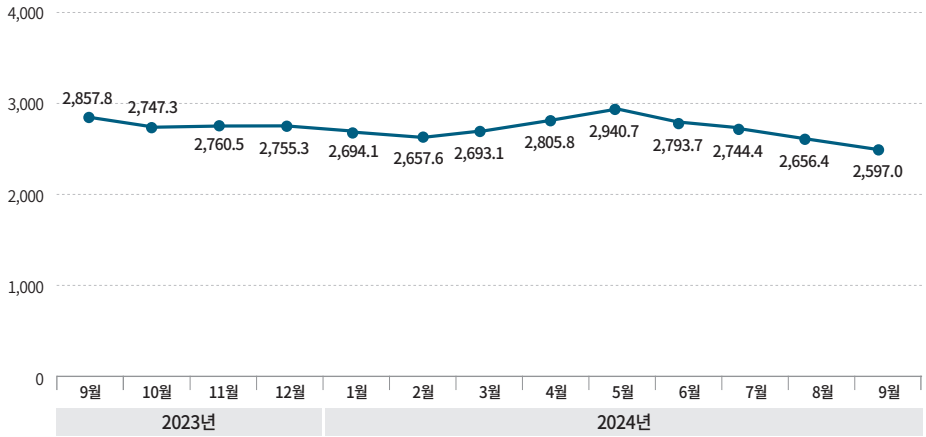
7) 기타광석

광물종합지수 추이

1 9월 광물종합지수는 2,597.0p로 전월 대비 2.2% 감소

- '24년 9월 광물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2.2%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2,656.4p) 대비 9.1% 감소한 2,597.0p를 기록함

(단위: 2016년 = 1,000 기준)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지수	2,857.8	2,747.3	2,760.5	2,755.3	2,694.1	2,657.6	2,693.1	2,805.8	2,940.7	2,793.7	2,744.4	2656.4	2,597.0	-2.2	-9.1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priceStocks/pricestocks/priceStocks.do(2024.10.24.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 동국산업, 포항에 니켈도금강판 공장 준공[38)]

동국산업은 지난 9월 26일 이차전지 원통형케이스 소재인 '니켈도금강판' 공장을 포항에 신규 구축하는 준공식을 개최함

- 동국산업의 '니켈도금강판 생산 공장' 준공은 포항시의 이차전지 핵심기업 대규모 투자 유치 등 이차전지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요한 성과 중 하나임
- 동국산업은 그간 자동차 정밀부품 소재가 되는 '냉연강판' 생산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이뤄왔으나 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니켈도금강판' 생산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함
- 니켈도금강판은 전기차 등의 원통형 이차전지 케이스 소재로 사용되며, 전기차 배터리 형태가 파우치형, 원통형 등으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동국산업의 이번 투자는 이차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로 평가됨
- 투자 규모는 당초 880억 원 규모를 계획하였으나, 장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총 1,230억 원을 투자해 연간 최대 13만 톤의 니켈도금강판 제조가 가능한 설비를 구축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38) 뉴스웍스(2024.09.26.),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7092(2024.10.21. 검색)

8) 목재

1 '24년 1~9월 누적 원목 수입량은 121만 9천 ㎥로 전년 동기 대비 23.7% 감소

- **국내 수요부진으로 원목 수입이 감소하나, 목질판넬류는 국내 공급의 만성적 부족으로 수입이 증가함**
  - 제재목 누적 수입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했으나 성형목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목재펠릿 수입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 **중국의 강력한 경제부흥 정책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건설경기 부진으로 목재 수요감소로 가격이 하락 또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음**

국내 목재 품목별 수입현황

품목(단위)	2024년 누적(1-9월)	2023년 누적(1-9월)	증감률 (%)
원목(천㎥)	1,219	1,597	-23.7
제재목(천㎥)	1,258	1,308	-3.8
성형목재(톤)	60,403	60,313	+0.1
합판(천㎥)	1,036	980	+5.7
파티클보드(천㎥)	1,092	903	+20.9
섬유판(천㎥)	229	169	+35.5
목재펠릿(천 톤)	2,923	2,776	+5.3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4.10.21.),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200814&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AR01_04_02_03&component=(2024.10.24.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경상북도, 국산 목재산업 활성화 선도[39)]

경상북도는 목재산업의 부흥을 위해 경상권 목재자원화 센터 운영, 자동화 설비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

- 경상북도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목재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춘양목(금강송) 등 고품질의 목재로 과거부터 명성을 쌓아왔음
- 하지만 최근 수입 목재의 유입으로 국산 목재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산림 부산물과 미이용 목재의 활용도가 낮아 자원 낭비 문제가 대두됨
- 또한, 목재 가공 산업의 고령화와 기술 인력 부족으로 산업 발전이 어려운 상황임

그에 경상북도는 포항시에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23~'26, 100억 원)를 건립하여 자동화 설비와 첨단 건조 시설을 도입해 국산 목재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목재 가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

- 성주군에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24~'25, 30억 원)를 조성하여 벌채 시 발생하는 산림 부산물을 산업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 김천시에서는 국산 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4~'27, 130억 원)을 추진, 국산 목재를 건축 재료로 활용하여 친환경 목조건축을 실현하고 목재 수요를 창출할 방침
- 어린이 이용 시설 목조화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등 시설을 국산 목재로 리모델링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22년부터 8개 어린이집에서 완료되었으며, 확대 추진 중임

목재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 중임

- 봉화군에 목재 친화 도시 조성 사업('22~'25, 50억 원)을 추진하여 목조 공연장과 목재 특화 거리를 조성, 지역 주민들의 예술·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계획임
- 구미시에는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사업('23~'27, 52억 원)을 통해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목재 가치를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9) 경향신문(2024.10.20.), https://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05704(2024.10.21.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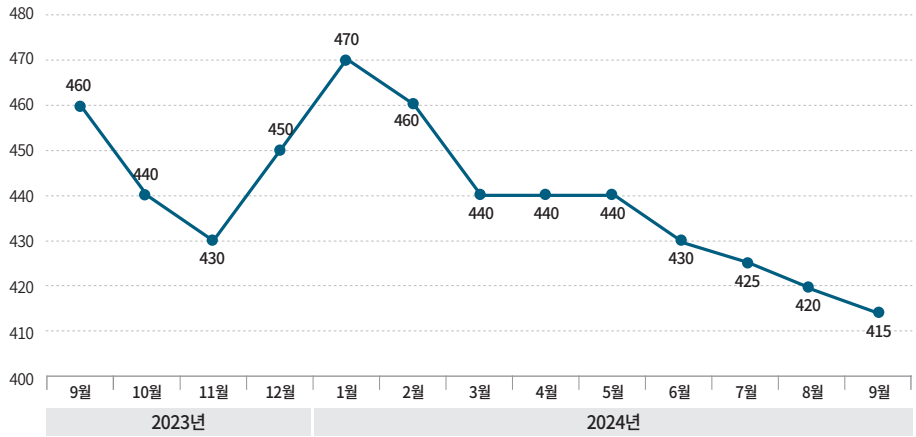
9) 고철

1 국내 고철 가격 하락

- **국내 9월 생철 가격은 전월 대비 1.2% 하락한 톤당 41만 5천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9.8% 하락한 수준임**
  - '24년 1월에 톤당 47만 원을 기록했던 고철 가격은 이후 8개월 동안 연속 감소 또는 보합세를 기록하고 있음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단위: 천 원/톤)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생철	460	440	430	450	470	460	440	440	440	430	425	420	415	-1.2	-9.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4.10.24.), 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4.10.24.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 3분기 고철 수입,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40)]

건설경기 침체로 국내 고철 수요가 저조한 가운데, 3분기 수입 실적 또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3분기 고철 수입은 57만 9천 톤으로 2분기(55만 3천 톤) 대비 4.7% 증가하였으나, 전년 3분기(88만 9천 톤) 대비는 3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총수입은 전년 대비 150만 톤 이상 급감할 전망임
- 1~3분기 누적 고철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3.5% 감소한 170만 3천 톤이었으며, 국가별로는 일본산이 122만 8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7% 감소, 러시아산은 19만 3천 톤으로 22.7% 감소, 미국산은 9만 6천 톤으로 7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0) 철강금속신문(2024.10.23), http://pdf.snmnews.com/PDF/REAL/2024/10/23/PS011023010100301B0001.pdf(2024.10.24.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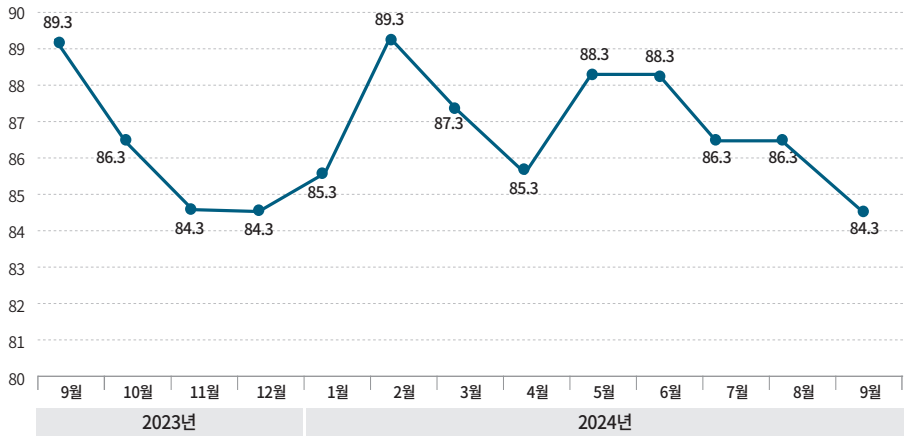
10) 철재

1 국내 열연코일 가격 하락

- **9월 열연코일(3.0×4×8mm) 가격은 전월 대비 2.3% 하락한 84만 3천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5.6% 하락한 수준임**
  - ’23년 5월까지 톤당 108만 원대를 기록했던 열연코일 가격은 ’23년 6월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23년 7월부터 꾸준히 톤당 80만 원~90만 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음

열연코일 연간 가격 추이

(단위: 만 원/톤)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열연코일	89.3	86.3	84.3	84.3	85.3	89.3	87.3	85.3	88.3	88.3	86.3	86.3	84.3	-2.3	-5.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4.10.24.), 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4.10.24.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 9월 건설경기, 전월 대비 소폭 회복[41)]

9월 신규 수주가 개선되면서 체감 건설경기도 소폭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은 지속되고 있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는 75.6으로 전월 대비 6.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함
- 9월 CBSI 상승에는 주택 부문 신규수주 개선과 수주잔고 지수 상승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나나, 여전히 기준선을 밑돌면서 건설 체감경기는 부정적 응답이 뚜렷한 상황임
- 10월 CBSI는 전월 대비 7.9p 상승한 83.5로 예상되는 등 모든 세부 실적지수가 9월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기준선 이하로 건설경기는 9월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1) 철강금속신문(2024.10.16.), http://pdf.snmnews.com/PDF/REAL/2024/10/16/PS011016010100201B0001.pdf(2024.10.20. 검색)

11) 자동차

① '24년 8월 국내 자동차산업, 전월 대비 내수·수출·생산 모두 감소[42)]

8월 내수는 전월 대비 3.2%, 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를 기록함

- 전반적인 경기부진, 기아의 신차 생산라인 조성공사 영향에 따른 공급 감소, 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 임단협 협상에 따른 부분파업으로 발생한 생산 차질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한 10만 2,804대를 기록함
- 다만, 친환경차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0.6% 증가한 51,712대를 기록했으며, 특히 수입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 호조로 하이브리드는 전년 동월 대비 21.5%, 전기차는 EV3의 신차효과와 테슬라 판매호조로 62.3% 증가함

8월 수출·생산은 전월 대비 각각 두 자릿수인 20.6%, 17.7% 감소함

- 수출은 국산 하이브리드차, SUV의 북미시장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현대, 한국지엠의 부분파업 및 부평공장 생산시설 보수공사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5.6% 감소한 18만 9,850대를 기록함
- 생산은 내수 감소 및 부분파업, 생산라인 조정에 따른 생산차질로 전년 동월 대비 3.9% 감소한 299,687대를 기록함

'24년 8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단위 : 대, 백만$, %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률		
	연간	8월	1~8월	7월	8월	1~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내수	**1,739,249**	**130,667**	**1,160,470**	**132,396**	**128,200**	**1,059,138**	**-3.2**	**-1.9**	**-8.7**
(국산차)	1,451,663	106,638	980,705	107,877	102,804	878,259	-4.7	-3.6	-10.4
(수입차)	287,586	24,029	179,765	24,519	25,396	180,879	3.6	5.7	0.6
수출	**2,766,271**	**201,062**	**1,852,228**	**200,181**	**189,850**	**1,857,111**	**-5.2**	**-5.6**	**0.3**
(완성차 수출액)	70,864	5,293	46,843	5,366	5,066	47,434	-5.6	-4.3	1.3
(부품 수출액)	22,954	1,904	15,550	2,069	1,836	15,222	-11.3	-3.6	-2.1
생산	**4,243,597**	**311,957**	**2,862,625**	**290,906**	**299,687**	**2,735,875**	**3.0**	**-3.9**	**-4.4**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2024.09.27.),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25&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4.10.20.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2)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2024.09.27.),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25&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4.10.20. 검색)

2 현대글로비스, 중국 최대 전기차생산기업과 해상운송 협업 추진[43)]

- **현대글로비스와 중국의 전기차 생산기업 비야디(BYD)가 자동차운반선(PCTC)과 글로벌 컨테이너 물류 운영 인프라 공동 활용을 위한 전략적 협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대글로비스는 BYD와 '물류 및 완성차 해상운송 사업에 대한 전략적 협업'을 목표로 MOU를 체결함
  - 양사는 '글로벌 컨테이너 물류 운영', 'PCTC 공동 활용' 등에 관한 협력을 검토할 예정임
  - 물류 부문에서는 현대글로비스의 글로벌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컨테이너 포워딩 사업 협업을 논의하고, 완성차 해상운송 부문에서는 BYD가 보유한 자동차 운반선 선복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현대글로비스의 선박을 통한 BYD 차량 수출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임
  - 현대글로비스는 향후 5년간 비계열 매출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현재 90척 안팎인 선대 규모를 '30년까지 128척으로 늘릴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 유럽연합(EU),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5년간 부과 결정[44)]

- **EU 집행위원회는 27개 회원국 투표를 통해 관세 부과안을 통과시켰으며, 독일과 헝가리를 포함한 5개국이 반대했으나 프랑스 등 10개국이 찬성함**
  - 최종 관세율은 17.8%에서 45.3% 사이로 책정되어 이달 31일부터 적용되며, 테슬라의 경우 최저 관세율인 17.8%가 적용됨
  - 자동차 수출 산업 의존도가 큰 독일은 무역 전쟁 우려로 관세 인상에 반대했으나 통과를 막지 못했으며 폭스바겐과 BMW는 관세 부과가 유럽 자동차업계의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다며 반발함
  - 독일 자동차업계와 정부는 합작회사 형태로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자국 업체의 피해를 우려해 EU의 관세 인상에 반대해 왔으며,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주장하며 EU와 중국 간의 협상을 촉구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3) 코리아쉬핑가제트(2024.09.27.),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42712(2024.10.20. 검색)
44) 서울경제(2024.10.05.), https://www.sedaily.com/NewsView/2DFG8QKECW(2024.10.20. 검색)

4 중고차 수출, 역대 최고 실적 기록[45)]

한국 중고차 수출이 신차 수출의 증가와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최대 기록을 경신할 전망임

- ’23년 한국 중고차 수출액은 47억 달러(6조 4,000억 원)로 ’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어 지금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지난해 기록을 넘는 6조 6,000억 원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중고차 수출 증가는 신차 수출 증가로 중고차 인지도가 동반 상승했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졌으며, 중국 차 대비 높은 품질 경쟁력까지 더해지는 등 수출 증가에 따른 낙수 효과로 분석됨
- 한국 중고차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중동 국가와 CIS 국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중고차 경매장에 해외 바이어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업체 등록 비중이 ’20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5) 동아일보(2024.10.11.),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010/130193446/2(2024.10.20. 검색)

5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멕시코 자동차에 높은 관세 부과 공약[46)47)]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힘

- 트럼프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USMCA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함
- 현재 USMCA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멕시코 생산 차량 수입 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어 비야디(BYD) 등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멕시코에 제조공장 설립 추진이 멕시코를 '관세 피난처'로 삼은 저가 중국차의 대규모로 유입을 우려하고 있음
- 트럼프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가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 문제라고 강조하며 중국과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자율주행차를 금지하겠다고 언급함
- 트럼프는 '16년에도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규모 관세를 위협했으며, 이전 재임 중에도 USMCA 재협상을 통해 미국 내 자동차 제조 부문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미 의회는 중국 자동차가 멕시코에서 생산되더라도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중국산 자동차의 유입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와 같은 감세 공약을 통해 미국 자동차 산업의 부흥을 약속하며 경합주 표심을 공략하고 있음

- 트럼프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 자동차 산업의 부흥을 강조하며, 감세 공약을 통해 자동차 구매 비용을 줄이겠다고 약속함
- 또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실패로 미국 가정의 자동차 구입 비용이 상승했다고 비판하며, 감세 공약으로 미국 가정이 더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의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정책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그의 관세 정책으로 상쇄될 것으로 분석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6) 아시아경제(2024.10.11.),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01108363435983(2024.10.20. 검색)
47) 뉴스1(2024.10.14.), https://www.news1.kr/world/international-economy/5566824(2024.10.20.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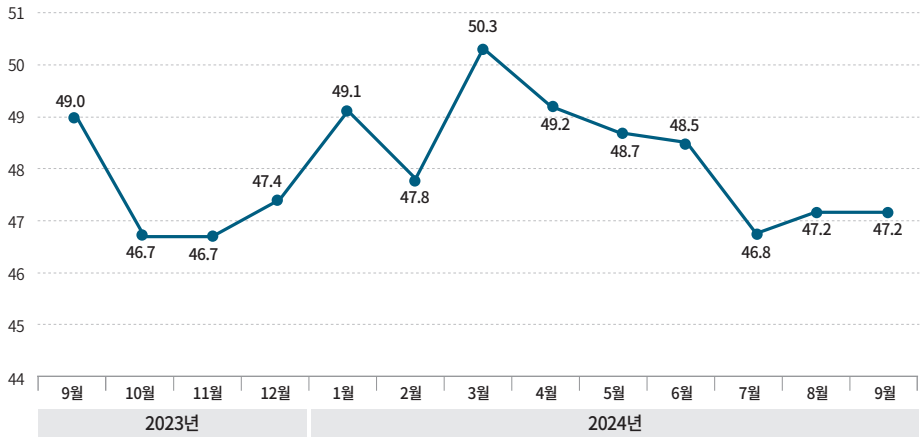
12) 잡화

1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47.2p로 전월과 같은 수준 기록[48)]

지난 9월 17일, 미국 연방준비이사회가 4년 반만에 기준 금리를 인하했지만 여전한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인해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한 상황임

- 지난 8월 지수는 3월 고점(50.3p) 이후 5개월 만에 전월 대비 반등했었으나 9월 미국의 PMI는 당초 47.5p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시장 전망치를 소폭 하회한 47.2p를 기록함
- 9월 미국 제조업 부문의 신규주문(44.6p→46.1p)이 전월 대비 반등했으나 지난 4월 이후 여전히 6개월 연속 50p선을 하회하고 있음
- 한편 9월 고용지수는 43.9p를 기록 전월 46.0p보다 하락하였음. 최근 미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정책기조로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미국 PMI (구매관리자지수) 추이



자료: Trading Economics (2024.10.02.), KMI 작성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48) Trading Economics(2024.10.01.),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2024.10.22. 검색)

2 국내 9월 수출물동량 전년 대비 7.5% 증가한 588억 달러 기록,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선박 등 증가[49)]

- **우리나라의 9월 선박 수출은 전월 대비 76.2% 증가한 24억 달러로, 2개월 연속 증가율 50%를 초과하고 있음**
  - LNG운반선 중심으로 고부가 선박 수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21년 하반기부터 '22년 상반기까지 수주받은 선박들의 선가 상승도 반영되어 전월 대비 높은 수출 증가율(76.2%)을 기록함

- **일반기계 9월 수출은 미국과 중동지역으로의 수출 감소와 글로벌 가격 경쟁력 심화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13.3% 감소한 38억 달러를 기록함**
  - 일반기계의 9월 미국 수출량은 전월 대비 28.9%가 감소한 8.5억 달러, 중동 수출량은 8.0% 감소한 4.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49) 산업통상자원부(2024.10.01.),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69587/view?mno=&pageIndex=1&rowPageC=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EC%88%98%EC%B6%9C%EC%9E%85(2024.10.22.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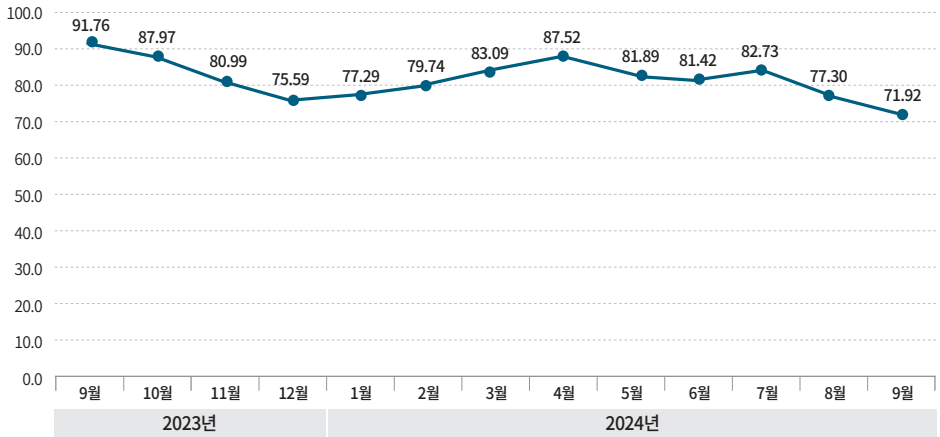
13) 유류

1 '24년 9월 국제유가, Dubai, Brent, WTI 모두 전월 대비 하락

- **'24년 초 증감하던 국제유가는 4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연초보다 낮은 수준이 되었으며, 세계 3대 유종의 배럴당 9월 평균 유가는 71.92달러를 기록함**
  - 지속되는 OPEC+ 중심의 석유 감산 정책에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수요부진이 지속되면서 유가가 크게 높아지지 않아 주요 산유국들의 재정이 악화되어 감산 기조가 일부 완화될 전망임
  - 전반적인 유가는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러-우 전쟁과 이-팔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유동적인 시장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국제 원유 가격 추이

(단위: 달러/배럴)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93.25	89.75	83.55	77.33	78.85	80.88	84.18	89.17	84.04	82.56	83.83	77.60	73.52	-5.3	-21.2
Brent	92.59	88.70	82.03	77.32	79.15	81.72	84.67	89.00	83.00	83.00	83.88	78.88	72.87	-7.6	-21.3
WTI	89.43	85.47	77.38	72.12	73.86	76.61	80.41	84.39	78.62	78.70	80.48	75.43	69.37	-8.0	-22.4
평균	91.76	87.97	80.99	75.59	77.29	79.74	83.09	87.52	81.89	81.42	82.73	77.30	71.92	-7.0	-21.6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유가동향 국제유가,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4.10.20.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국내 LNG 업체, 미국의 LNG 수출 증가로 긍정적 영향[50)]

미국의 LNG 수출 증가와 이에 따른 투자 확대가 국내 LNG 업계의 원가 경쟁력과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미국 텍사스주의 퍼미안 분지와 걸프만을 연결하는 매터혼(Mattehorn) 가스 파이프라인이 10월 1일 가동을 시작하며 LNG 수출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음
-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로 인해 하루 25만 톤을 수송하던 파이프라인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5만 5,000톤을 수송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추가한 것으로, 해당 지역 하루 총 운송 용량은 '28년까지 45만 톤으로 확대될 예정임
- LNG 선적을 위한 수출터미널도 건설도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북미 지역에서 건설되고 있는 10곳의 터미널이 완공되면 '28년 LNG 수출 용량은 하루 25만 톤에서 54만 톤으로 늘어나게 됨
- 저렴한 미국산 LNG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LNG 발전사들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직접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SK E&S, GS, SK가스 등 국내 기업들이 미국산 LNG 도입 확대의 주요 수혜자로 지목됨
- 국내 업체들은 블루 수소 생산과 발전을 위한 LNG 도입량 증가와 함께 사업 다각화를 추진 중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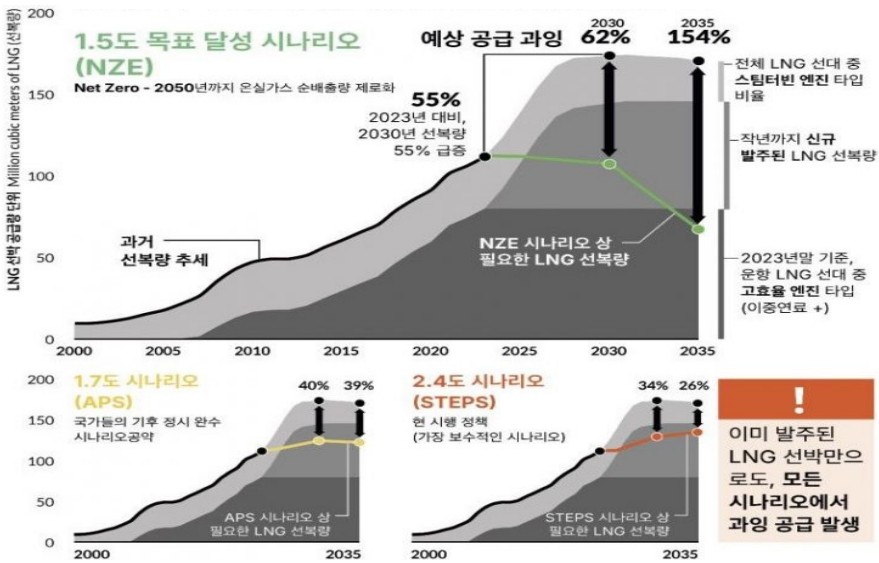
50) 국민일보(2024.10.07),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594168&code=61141411&cp=nv(2024.10.20. 검색)

3 LNG 운반선 과잉 발주 경고[51)]

과도한 LNG 운반선 투자가 미래의 에너지 전환과 맞물려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됨

- 독일의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LNG 운반선 발주량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수요 예측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 '24~'26년 총 251척의 LNG 운반선이 인도될 예정인데 이는 '23년 기준 전체 운영 중인 용량의 38%에 해당하며, IEA의 3가지 기후 시나리오 모두에서 현재 발주된 LNG 선박이 과잉 공급 상태임을 지적함
- 특히 시나리오 중, '지구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넷제로 배출(NZE) 시나리오에서는 단 한 척의 신규 LNG 운반선도 필요하지 않으며, '30년까지 약 400척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됨
-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인 '현재 정책 시행(STEPS)' 시나리오에서도 LNG 운반선은 현재 과잉 공급 상태이며, '30년에는 '23년 말 기준 선복량의 약 40%가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운반선 약 275척에 해당함
- 한국이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잉 투자가 한국 조선업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며, 미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친환경 선박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함

IEA 3개 시나리오와 LNG 운반선 선복량 추세 비교 그래프



자료: 아시아경제(2024.10.14.),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01408574599897(2024.10.20.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1) 아시아경제(2024.10.14.),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01408574599897(2024.10.20. 검색)

4 OPEC·IEA, 원유 수요 전망 하향 조정으로 유가 급락[52)53)]

OPEC이 '24년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치를 3회 연속 하향 조정함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락함

- OPEC은 '24년 일일 원유 수요 증가량을 200만 배럴에서 190만 배럴로 낮추면서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와 북해산 브렌트유(Brent)가 각각 2.20%와 1.95% 하락함
- 미국은 이스라엘의 군사 목표가 이란의 원유 시설에서 군사시설로 좁혀졌다고 전하는 등 중동의 긴장 완화로 이란의 원유 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낮아진 것도 유가 하락에 기여함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추가적인 유가의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음

- IEA는 월간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하루 원유 증가량을 기존 수치보다 하루 4만 배럴 낮춘 86만 배럴로 발표했으며, 중국의 경제 둔화와 전기차 전환이 원유 수요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됨
- IEA는 올해 중국의 원유 수요가 하루 15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이는 기존 예상보다 하루 3만 배럴 하향 조정한 수치이며 8월 중국의 원유 소비량은 전년 동월 대비 하루 50만 배럴 줄어들어 넉 달째 감소세를 이어감
- 수요 둔화에도 OPEC 비회원국인 미국, 가이아나, 캐나다, 브라질이 공급을 주도하고 있으며, IEA는 비회원국 산유량이 하루 15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OPEC에 이어 IEA도 원유 수요 전망치를 낮춘 가운데 유가는 하락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2) 뉴스1(2024.10.15),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5568101(2024.10.20. 검색)
53) 뉴스핌(2024.10.1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015001141(2024.10.20. 검색)

14) 화학공업 생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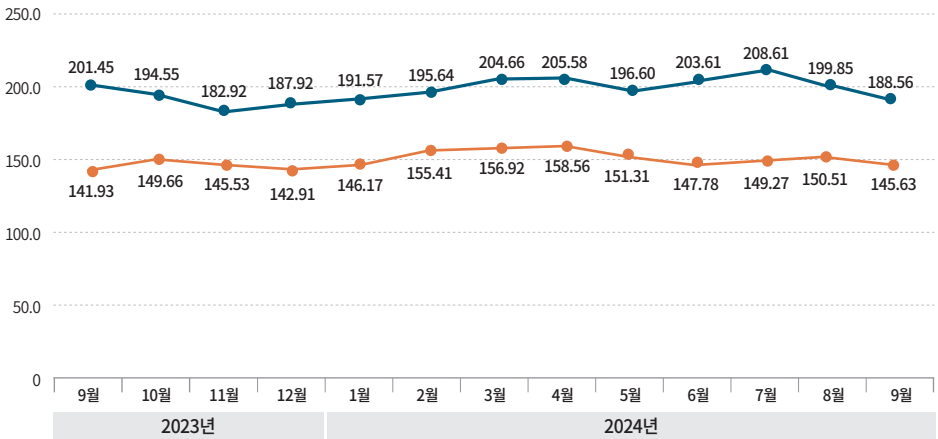
① 9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나프타 하락 · 에틸렌 상승

나프타와 에틸렌의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하여 각각 188.56p, 145.63p를 기록함

-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나프타의 '24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5.6%, 전년 동월 대비 6.4% 하락함
- 나프타 크래킹 등을 통해 생산되는 석유화학산업의 핵심원료인 에틸렌의 '24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3.2%, 전년 동월 대비 2.6% 하락함
- 유가 하락이 나프타 생산에 영향을 주면서 9월 나프타 생산자물가지수가 감소했으며, 8월 소폭 증가했던 에틸렌의 생산자물가지수도 9월 하락 전환함

(2020 = 100 기준)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201.45	194.55	182.92	187.92	191.57	195.64	204.66	205.58	196.60	203.61	208.61	199.85	188.56	-5.6	-6.4
에틸렌	141.93	149.66	145.53	142.91	146.17	155.41	156.92	158.56	151.31	147.78	149.27	150.51	145.63	-3.2	2.6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4.10.22.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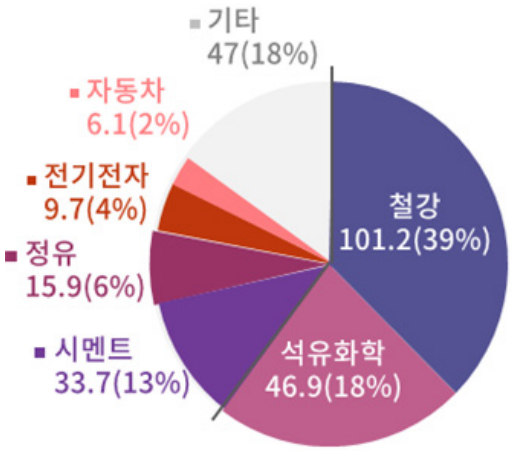
2 정부·산업계, 석유화학·정유 탈탄소 협력방안 논의[54)]

정부와 산업계는 석유화학과 정유산업의 탈탄소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제2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개최함

-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철강·금속업계와의 논의에 이어 두 번째로, 석유화학 및 정유사업의 탄소중립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함
- 석유화학산업과 정유산업은 각각 4,690만 톤과 1,59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등 산업 부문 전체 배출량의 24%를 차지하고 있어 탄소 배출 경쟁력이 취약하나, 친환경 산업들이 석유화학 제품에 의존하고 있어 제품 수요는 '60년까지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석유화학 제품과 원유 정제 분야로의 확대 여부를 논의하고 있어 이들 산업은 탄소 규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업계는 탄소 포집·저장(CCUS) 기술 상용화와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함
- 석유화학과 정유산업은 산업 연계성이 높아 긴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단위=백만 톤, 2018년 기준)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아시아경제(2024.10.11.),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01108370040130(2024.10.20.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4) 아시아경제(2024.10.11.),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01108370040130(2024.10.20. 검색)

3 석유화학 업계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 시한 임박[55)]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불황은 일시적이지 않아, 구조조정의 시한이 임박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현재의 석유화학 업계 불황은 중국이 석유화학 제품의 자급률을 높이면서 발생한 구조적 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중국은 기초화학 제품의 자급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은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합성수지의 자급률도 80%를 넘어섰고 폴리프로필렌(PP) 제품도 중국이 국산화를 완료한 상태임
- 업체들은 중국 수출을 유럽 및 북미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대체 시장을 찾기 어려운 상황임
- 기초화학 자산 매각을 통한 체질 개선도 원매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어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임
- 일본은 30년 전 구조 을 통해 성공적으로 공급을 조절했으며, 정부가 공동 투자와 판매 등을 주도하고 각 지역별 화학제품의 공급을 통제하면서 현재 내수를 위한 최소한의 설비만 남겨둔 채 교통정리에 성공한 바 있음
- 업계에서는 석유화학제품의 원가를 크게 절감한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와 중국의 신규 설비가 추가로 가동되는 2026년을 구조조정의 시한으로 보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5) 서울경제(2024.10.15.), https://www.sedaily.com/NewsView/2DFKUFC2ES(2024.10.20. 검색)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최석우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연구진

이기열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연구위원
김영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수영 항만정책·운영연구실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연구원

감 리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4년 10월 30일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편집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